

ORIGINAL ARTICLE

Medical Professionalism Development of Oliver R. Avison



Sook-hee Ryue and Eun Bae Yang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올리버 에비슨의 의학전문직업성 발달 과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류숙희, 양은배

Purpose: How does professionalism develop while becoming a great doctor? This study based on the life of Avison, a great doctor, aims to identify the developmental features of an excellence and professionally ethical doctor.

Methods: We chose Oliver R. Avison, who founded the first modern hospital and medical school in Korea, now known as Severance Hospital and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ixteen pivotal events in Avison's life were extracted, based on 2 standards: self-memory and strong feeling. Further we analyzed Avison's life using a professional development analysis model.

Results: Oliver Avison's medical professionalism development was divided into 4 periods: 'Motivating in Medicine period', 'Medical Training period', 'Medical Doctor period', and 'Medical Educating period'. A hallmark of Oliver Avison's medical professionalism development was the growth of motiva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medical knowledge, medical creativity,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relationship forming abilities.

Conclusion: To excel in medicine, a medical student should be encouraged to understand his unique intellectual potentials and interest as a medical worker, and try to understand problems in the established domain and field of medicine, to develop new medical symbol systems, and climates.

Key Words: Professional practice, Medical professionalism development, Medical education, Oliver R. Avison

서론

사람들은 생애발달의 특정 시기에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의학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의사로서의 전문직업성을 획득하게 된다. 외형적으로는 비슷한 의학교

육 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뚜렷한 전문직업성을 함양하여 고통 받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거나 세계적으로 명망을 얻은 의학 연구자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직업적인 의사가 되기도 한다. Guest et al.[1]은 이것이 의학에 대한 동기와 의학교육을 이수하

Received: March 2, 2009 • Accepted: April 30, 2009

Corresponding Author: Eun Bae Yang

Department of Medical Education,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50 Seongsanno, Seodaemun-gu, Seoul 120-752, Korea
TEL) 02-2228-2511 FAX) 02-364-5450 E-mail) nara@yuhs.ac

Korean J Med Educ 2009 Jun; 21(2): 185-193.
doi: 10.3946/kjme.2009.21.2.185.

©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All rights reserved.

는 과정에서의 전문직업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미국내과학회에서는 의사의 전문직업성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의사들이 함양해야 하는 전문직업성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였다[2]. 또한 의학전문직업성과 관련하여 Scott-Smith[3], Connelly [4], Miettinen & Flegel[5], Chung[6], Hur[7] 등은 그 발달과정에서 교육연한 및 경력에 초점을 맞추어 지식 및 술기의 유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의학전문직업성의 발달을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의 인지적 기술 및 전문 분야의 실행 또는 술기의 발달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 대부분은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개념과 개념적 발달, 교육의 당위성 및 방법론에 대한 연구들이었고, 의사 개인의 생애 과정 분석을 통해 한 개인에게서 전문직업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달하여 가는가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었다. 사실 의사들의 전문직업성은 개개인의 어린 시절, 의학 교육 기간 및 의사로서의 삶이라는 생애 발달 전 과정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더 ‘훌륭한 의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의과대학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동기와 열정 그리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지속적인 자기노력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성격, 인성 등과 마찬가지로 전문직업성 또한 특정 시기의 교육만으로 발달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애 전 과정의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전문직업성의 변화과정에 대한 심층적이고 해석적인 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개인의 생애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의사로서의 전문직업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올리버 에비슨의 생애 과정에서 중요 사건들이 전문직업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올리버 에비슨의 의학전문직업성 발달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올리버 에비슨의 의학전문직업성 발달의 특성은 무

엇인가?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의사의 생애사건 분석을 통한 전문직업성 발달 궤도와 특성을 추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브란스 초대 병원장을 역임한 올리버 에비슨(Oliver R. Avison)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문직업성 발달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특정 인물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할 때에는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대상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훌륭한 의사로서 일정 시간 검증을 거쳤고 적절한 생애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인물이며 동시에 심층적인 해석과 추리가 가능한 신뢰할 만한 자기 보고 문헌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여기서 신뢰할 만한 자기 보고 문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물론 보고자 자신이 기술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허구가 아님을 천명할 수 있는 자료인데[8], 올리버 에비슨의 회고록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올리버 에비슨은 한국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근대 의학의 개척자이자, 의학교육자로서, 한국최초의 서양식 병원 세브란스의 초대 병원장이다. 그는 혼란스러운 구한말시대에 조선 땅에서 그의 생애 40년 이상을 한국의 의학과 교육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9]. 또한 어떤 의사보다도 의학교육자로서 많은 공적을 남겼기 때문에[10]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주요 생애사건 추출 방법

올리버 에비슨의 생애사건을 추출하고, 전문직업성 발달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올리버 에비슨의 회고록 “Memoirs of life in Korea (1940)”[8]를 중심으로 문헌 분석을 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 올리버 에비슨의 생애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이나 변화를 가져왔던 주요 생애사건(pivotal life event)을 찾아내고 그것을 중심

Table 1. Pivotal Life Events of Oliver R. Avison (1860 ~ 1956)

1. Born in Yorkshire, England
2. Moved in Branford, Canada
3. Attend small school, experience several death like friend's drowned death, and disease death
4. Saved his drowning friend
5. Attend the Ontario College of Pharmacy
6. Attend the Toronto University Medical School
7. Married Jennie
8. Met Hardie and Organized YMCA
9. Faculty of Toronto University Medical School
10. Succeed as a surgeon
11. Arrived in Busan
12. Succeed in the eradication of Cholera
13. Established the Chei-Chung Won hospital
14. Opened the Severance Hospital and medical college
15. President of two colleges; severance and Yonhi College (Yonsei Univ)
16. Transfer Yonsei Univ. and Severance Hospital to Korean

으로 전문직업성 발달 과정을 재구성하였다. 주요 생애 사건의 추출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올리버 에비슨 스스로 회고한 사건이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일지라도 그가 직접 기록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건은 부가적인 설명을 위해 사용되지만, 올리버 에비슨의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생애사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다른 어떤 사건에 비해 강력한 정서 경험으로서 인식된 사건이어야 한다. 이때의 정서 경험은 분노, 슬픔, 기쁨, 희열, 강한 애착 등의 긍정·부정적인 정서 모두를 포함하는데 어떤 사건에 대한 정서 반응은 생애 전반에 흐르는 지향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추출 방법에 따라 올리버 에비슨의 주요 생애사건 16가지를 선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3.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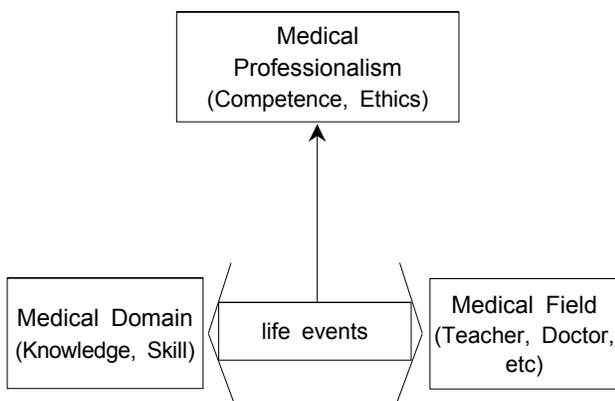
올리버 에비슨의 전 생애에 걸친 의사로서의 전문직업성 발달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위인 발달연구, 전문

직업성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선행연구에서 Gardner는 아이슈타인, 프로이트, 피카소 등의 발달과정을 분석하여, 전문직업성의 전 생애 발달을 견인하는 심리적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인물의 지적 강점과 특별한 성격을 포함하는 개인특성(individuality), 특이한 성장 환경, 가족이나 친구, 스승과 같이 중요한 영향을 준 사람들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회문화 환경인 분야(field), 그리고 그 개인이 지적 강점을 발휘하는 특정 영역(domain)의 세 요소에 주목하였다[11,12]. 이 연구를 발전시켜 Moon et al. [13]은 Gardner가 지적한 이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정을 분석하여, 세 요소들의 조화와 부조화 관계를 중심으로 생애발달단계를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직업성의 발달이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발달을 견인하면서 동시에 발달되는 개인특성(individuality)을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으로 대치하였다.

최근의 전문직업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문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3,4,5,6,7]에 비해서 내부의 자기규율적인 윤리성을 더욱 강조하여 전문직업성을 유능함(competence)과 윤리성(ethics)을 포함하는 인지체계로 정의하고 있다[11]. 따라서 의학전문직업성의 발달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저자들은 Fig. 1과 같은 의학전문직업성 발달 분석 모형(Medical professional development analysis model)을 개발하였다.

Fig. 1의 분석모형에는 전문직업성은 자기의 업무에 능통하고, 숙달되어 있으며, 창의적이어야 하면서 동시에 그 직업에 부과된 사회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지켜내고자 하는 심리적 힘의 정도로 정의되었다. 그리고 의학지식 및 술기를 포함하는 의학의 영역(medical domain)과 의학에 동기를 부여하고, 헌신하도록 격려 해주거나, 가르침을 주고받으며 영향을 준 관련 분야(medical field)와의 상호작용이 포함되었다. 이 상호작용은 생애사건을 통해 일어난다. Fig. 1의 분석모형에 따라 올리버 에비슨의 삶에서 추출된 주요 생애사건을 분석한 후에 생애시기별로 정리하였다.

Fig. 1. Medical Professionalism Development Analysis Model



결과

1. 올리버 에비슨의 의학전문직업성 발달 과정

올리버 에비슨의 주요 생애사건을 의학전문직업성 발달 분석모형에 근거하여 분석한 내용을 의사로서의 동기형성시기(motivating in medicine period), 의학수련시기(medical training period), 의사활동시기(medical practice period), 의학교육시기(medical education period)로 나누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동기형성시기(~18세: 1860~1878)

올리버 에비슨은 1860년에 영국 요크셔주에서 출생하였고, 6세에 캐나다 온타리오주 브랜포드로 이사하였다. 웨스턴 초등학교 시절에 도끼를 잘못 다루다가 다치고, 벼락에 죽을 뻔한 위험을 경험하였다. 또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해주고 그의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건들 속에서 올리버 에비슨은 생명의 귀중함과 생명을 지킨 것에 대한 기쁨을 경험하였다. 이 시절 올리버 에비슨은 당시의 많은 또래들처럼 공장에 다니며 야학을 다녔고, 야학교사로서 활동하였다. 또한 초등학교시절 수학경시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구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는 등 수학 및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에 주변 어른, 예를 들면 약 대신 별로 효과가

없는 약초나 쇠똥을 발라준 아주머니, 아들의 안전을 부탁한 친구의 아버지를 통해 올리버 에비슨의 아픔과 생명에 대한 특별한 감수성을 발달시켰다[8]. 특히 진보적 정치성향을 가진 장로교인 McCregor 교감 선생님의 만남은 올리버 에비슨이 이후 종파를 초월하여 선교와 의업을 조화롭게 결부시킨 의사가 될 성향의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올리버 에비슨의 말처럼 이 마을에서 발생한 몇 가지 사건들이 그의 태도와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8].

2) 의학수련시기(19~28세: 1879~1887)

이 시기 올리버 에비슨에게 영향을 미친 생애사건은 교사자격 취득과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생활, 스미스 폴즈 약국 취업과 약학대학 진학, 의과대학 진학과 스승 McCallum의 만남 등이다.

올리버 에비슨은 사범교육을 받고 교사자격을 갖춘 후 학교에서 수년간 교사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올리버 에비슨은 일생을 조그마한 지식을 사고 파는 일을 하며 보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좀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직업을 찾고자 하였다. 즉 자신의 적성 및 가치와 관련해서 스스로 이 일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고, 알맞은 일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을 하였으며[9], 이것은 이후의 올리버 에비슨의 의학전문직업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 올리버 에비슨이 더 크고 가치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자기 인식과정은 이후 의학과 의학교육에 몰입시키는 강한 동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올리버 에비슨은 여러 종류의 일 중에서 자신이 화학과 약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미스 폴즈 약국에 취직을 하여, 약사조수 일을 시작하였다. 그는 의사 McCallum, 유능한 약사 McIntyre에게서 수련을 받으면서 화학, 식물학, 의약재료, 조제법, 사업을 익혔으며, 특허를 받는 등 약사로서의 재능을 발휘하였다. 올리버 에비슨은 온타리오 약학대학(The Ontario of Pharmacy)에 입학하여 약학, 화학과 약물학에서 상을 받았다. 그리고 약학대학 식물학 교수로 일했다. 사실 야학 교사시절부터 올리버 에비슨은 '가르치는 일'의 보람과 사회적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약학대학에서의 강의를 시작하였

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학대학장 Shuttleworth로부터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듣게 되었다[8].

의과대학에 입학하면서, 그는 과도한 공부 때문에 건강을 해치기도 하였지만, 열정과 노력을 통해 좋은 성적으로 의대를 졸업하면서, 자신의 지적 역량을 의학 지식 및 술기와 접목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스승이자 멘토였던 의사 McCallum, 약학대학장 Shuttleworth가 보여준 깊은 관심과 애정은 올리버 에비슨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올리버 에비슨을 제자이자 후배 그리고 동료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였고, 그들로부터 유능한 의사가 가져야 할 지식과 태도를 배우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올리버 에비슨에게 있어 자신의 학문적 재능과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주변의 전문가 및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field), 약학과 의학이라는 지적 영역(domain)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해서 올리버 에비슨은 수학, 약리학, 의학에서 높은 성취를 보이며, 열정적인 배움과 익힘을 통해 유능함을 발전시켰다.

3) 의사활동시기(29~55세: 1888~1915)

이 시기는 올리버 에비슨이 의사로서의 경력을 유지, 발전시키는 시기였다. 올리버 에비슨은 개업 의사이자 대학의 외과 의사로서, 그리고 약학대학과 의과대학 교수로서 활동하였다. 올리버 에비슨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새로운 임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되었다. 특히 이즈음 조선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Hardie와 의학기독교청년회조직과의 만남은 올리버 에비슨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는 의학기독교청년회의 지원을 받아 조선에서 성공적으로 선교활동을 한 Gale과 Underwood의 강연을 듣고 조선에서의 의료선교사 활동을 결심하게 되었다.

올리버 에비슨이 도착할 당시 조선은 동학항쟁, 청일전쟁, 을미사변, 경술국치, 조선총독부 설치, 신민회 사건 등을 겪으면서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올리버 에비슨은 전문 의료인은 물론 의약품이 거의 없는 조선의 상황에 알맞은 진료 행위를 통해 의사로서의 유

능함을 증명하였고, 의료의 사회적 역할과 치료 이상의 문제에도 관여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고 받아들여 서양의료 미개척지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즉 올리버 에비슨은 이 시기에 조선인 조수, 조선인 환자, 조선의 국왕 그리고 조선에 있는 몇 명의 선교사 및 의사인 Allen 박사, Underwood와 교류하면서 한국근대의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는 국왕의 시의임과 동시에 당시 사회계층 중 가장 낮은 백성인 박성춘의 주치의기도 했다.

올리버 에비슨은 교사, 약사, 의사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훈련시기의 경험을 살려 우리나라 최초로 관련 교과서를 제작하고, 교육방안을 만들고 실제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약학실험실과 공장을 설치하고, 재능 있고 헌신적인 의사를 모집하였다[9]. 이어 조선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였던 콜레라 퇴치에 진력하고, 제중원의학교를 설립하였다. 사실 이전에 입국한 서양 의사들도 의료보조인력을 키우기에 노력한 것이 사실이지만 올리버 에비슨이야말로 처음으로 계획을 갖고 적절한 훈련과 경험으로 구성된 정식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 사람이다[9]. 또한 미국 오하이오주의 철강회사 사장 세브란스(Louis H. Severance)를 설득하여 1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아, 세브란스병원을 개원하고 세브란스 간호학교를 설립하였고, 제중원을 세브란스 의학교로 이름을 고쳐 쇄신시키는 등의 의료교육 및 개척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4) 의학교육시기(56~75세: 1916~1935)

올리버 에비슨이 나이 56세부터 한국에 머무르는 75세까지(1916~1935)의 시기는 주로 의학교육과 관련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올리버 에비슨은 한국 의학의 기초를 닦고, 훌륭한 한국인 의사를 기르는 것에 더욱 초점을 두었다. 올리버 에비슨에게 의학교육을 통한 의학 지식과 혜택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고[9], 이를 잘 제시함으로써 인해서 그는 훌륭한 의학교육자로서 역할을 하였다. 올리버 에비슨에게 자신의 전문직업성을 의학논문이나 치료법의 발견이 아닌 새로운 땅에서 의학을 안착시키고 발전시킬 예비의사에 대한 교육과, 의학교 그리고 병원의 운영으로 드러났다. 그는 조선에서 가장 필요한 작업이 의학교육, 의학용어의 정의

및 번역, 그리고 의료체제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헌신했다.

올리버 에비슨은 연희전문학교 교장을 겸임하면서, 세브란스의전의 운영을 통해 병원과 의학교육의 근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였다. 이후 그는 간호사, 의료기능인(안경사) 등을 길러내고, 안과, 약리학, 이비인후과 등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의학의 공익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의 교육적 노력은 한국에서의 근대 의학과 오늘날까지 유지되는 의학교육의 패턴이 되었다[9]. 최초로 한국인 병원장을 임명하고,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장직을 오궁선에게 인계하고, 그가 길러낸 한국의료인의 손에 그가 평생을 바친 한국의학교육의 미래를 맡기고 은퇴하였다.

2. 올리버 에비슨의 의학전문직업성 발달의 특성

올리버 에비슨의 의학전문직업성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직업에 대한 동기 및 사회적 책임의식 발달

올리버 에비슨의 의사로서의 동기형성은 죽음과 치료에 대한 감수성과 관련이 된다. 어릴 적 자신은 물론 친구가 죽을 뻔한 경험을 통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부적절한 치료약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고, 성장하면서 이와 같은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치료와 건강에 대한 관심은 약학교육과 의학교육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학업동기와 연결이 되었다. 이것은 올리버 에비슨으로 하여금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 약학과 의학영역의 공부에 강하게 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동기는 캐나다에서만 아니라 캐나다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선인에게 치료와 의학을 보급을 하고자 하는 생각에도 영향을 주었다. 올리버 에비슨은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한 조선인의 의료에 대한 절박함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올리버 에비슨의 이와 같은 동기는 그가 직업에 종사하기 이전, 그리고 종사하면서, 그리고 노년기에 의학교육자로 활동하면서 조금씩 그 초점을 달리 하면서 발전

되었고, 사회적 책임의식의 성장과 연결되었다. 처음에는 생명과 죽음, 치료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었던 것이 약학 및 의학입문시기에는 약리학, 의학 등의 학문에 대한 지적 관심과 성취동기에 불과했다. 이후 의과대학의 교수로서는 학문의 수월성과 이해도를 높이려는 동기로 연결되었고, 약품과 전문의료인이 없는 지역에서의 의사의 역할 및 책임, 그리고 자신이 주로 일하고 있는 조선의 열악한 의학교육의 상황을 개선하고, 의학지식을 더 폭넓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감으로 성숙되었다. 올리버 에비슨은 세브란스 1회 졸업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그때 나는 7명의 의사를 양성하는 동안 7명의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감개무량했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인간은 동물이 갖고 있지 않은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 젊은이들은 이를 알고 이에 따라 살려는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가? 이제 나보다 훨씬 더 유능하게 자신들의 모국어로 후학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들이 배출된다는 생각에, 내 나름대로 상당한 자부심을 느꼈다[10].

죽음과 아픔에 대한 사적이고 개인적이었던 관심과 지식에 대한 동기는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관련을 맺으면서 올리버 에비슨의 유능함과 윤리성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캐나다의 비교적 높은 의학 및 의학교육 수준과 올리버 에비슨의 스승, 친지, 친구, 종교단체가 이 선택과 동기형성 및 책임의식을 발달시키는 데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2) 의학지식 및 의학적 창의력의 발달

올리버 에비슨은 어린 시절에는 상처에 ‘쇠뿔’을 바르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정도의 얇은 수준의 의학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약학,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에는 매우 수준 높은 의학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훌륭한 스승, 특히 올리버 에비슨을 격려해주고, 진로를 개척하도록 하고, 인정해주는 약학

대학 및 의과대학의 스승들의 덕으로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가 될 정도로 성공한 의사이자 약사로서 의학술기 및 실행력을 매우 발달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올리버 에비슨이 조선에 왔을 때는, 풍토, 인습 등의 여러 상황이 그에게 의학지식을 전달해준 캐나다의 상황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가 가진 의학지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콜레라를 퇴치하기 위한 방법, 우유를 약품으로 처치하는 방법, 안과에서의 사용을 위한 안경 제조의 문제 등 캐나다에서는 굳이 그가 해결할 필요 없는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그가 일하고 있는 조선에는 있었고, 올리버 에비슨은 상황에 맞게 자신의 의학지식을 활용해야 했다. 올리버 에비슨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나는 미국 광학학회에 들러(중략) 안경알 표면을 정확하게 가는 방법을 배운 후 필요한 기계를 사서 휴가가 끝나는 대로 조선으로 가져왔다. 이것이 조선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렌즈 깎는 기계였다[10].

또한 의학교육과 관련해서도 1880년부터 1888년 사이에 올리버 에비슨이 받은 캐나다의 의학교육은 그가 한국에 있었던 1893년부터 1935년의 한국의학교육을 비교해볼 때에, 올리버 에비슨의 의학교육의 적용이 매우 창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일보다, 의료인을 길러내는 일을 우선시했다. 올리버 에비슨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장래 조선의 의료문제에 대해 여러 모로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비위생적인 환경 등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 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사의 숫자를 늘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중략)

이미 잘 알려져 있는 훌륭한 위생지식을 헌신적으로 보급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의료 선교사들에게 달리 또 있겠는가? 나는 이런 교육을 시키고 조선인 의사를 양성하는 데 시간과 정력을 바치기로 결심했었다[10].

또한 그가 한국어로 번역을 한 ‘해부학’은 그가 매우 적극적으로 의학을 적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올리버 에비슨의 전문능력과 윤리의식이 한국 의료계(세브란스)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9]. 이처럼 문제에 도전하고 자신의 의학지식을 매번 새로운 국면에 적용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올리버 에비슨의 의학적 창의력은 계속 발달되어 갔다. 의사로서의 유능함과 조선환자에 대한 책임감이 함께 영향을 주고받으며 올리버 에비슨의 의학전문직업성이 발달되었다.

3) 자기인식능력의 발달

좋은 의사로 성장하는 것, 의학전문직업성을 발달시켜가는 데에 심도 있는 의학지식과 의학공부에 대한 시간 투자, 그리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열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의사직업 특성에 대한 분석 및 그와 관련된 자기분석 및 인식능력의 발달이다. 먼저 올리버 에비슨이 교사직이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자기 인식과정은 이후 의학공부에 몰입하도록 더욱 강하게 자신을 동기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즉, 자신의 적성 및 가치와 관련해서 스스로 이 일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고, 알맞은 일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은 이후의 올리버 에비슨의 의학전문직업성의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다[9]. 실제로 올리버 에비슨은 자신이 화학과 약품, 그리고 의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는,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의학공부에 강하게 몰두하였다. 또한 올리버 에비슨은 자신이 의학을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하는 데에 관심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는 좋은 여건의 고국을 떠나 이국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의학의 사회적 가치와 자기실현에 매진하고자 결정하였다. 올리버 에비슨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서울에 도착하여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왕립병원 ‘제중원’을 구경하러 갔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 발전을 위해 내 일생을 바치기로 작정한 병원이었다[10].

이렇게 생각한 올리버 에비슨이 그 자신의 일생을 바

쳐 성심껏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학 전문직업성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올리버 에비슨처럼 일찍부터 의학 및 의학의 가치, 그리고 자신의 성향, 관심, 관점에 대한 인식과 분석능력이 발달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전문직업성이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14].

4) 전문직업성 발달에 영향을 준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올리버 에비슨의 전문직업성 발달과정에서 그가 가진 의사로서의 소질이 개화되고 발달되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다.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격려해준 친구의 아버지, 어린 시절 다녔던 초교파적 교회의 범인류애를 가진 여러 신도들과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가졌으면서 올리버 에비슨의 장애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준 초등학교의 교감선생님, 유능한 약사, 약학대학장, 선교의사 Gale이나 Hardie와 같은 친구, 조선인 조수, Severance, Allen, 조선의 국왕과 조선의 천민 백정 박성춘, 제자 김필순에 이르기까지 올리버 에비슨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의사가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 올리버 에비슨의 직업에 대한 동기, 학업에 대한 열의, 조선의학분야 개척의 선택 등의 생애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올리버 에비슨이 국왕의 전의이자 친구란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와서 구상한 계획에는 조선의 의료정책을 쇄신하며 공중위생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올리버 에비슨은 이와 같은 욕구와 가치들을 존중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 그들과 함께 노력하였다. 올리버 에비슨은 자기의 욕구와 관심사를 잘 알았던 것처럼 그와 관련하여 그에게 애정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지향과 욕구를 이해했고 이들과의 진지한 교류를 통해 자신의 전문직업성을 더욱 발달시킬 수 있었다.

고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의, 전공의, 전문의가 되는 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동일한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의학지식과 술

기습득 외에도 전문직업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의학전문직업성은 유능함과 윤리성의 차원에서 발달이 이루어진다. 의학과 관련된 개인차원에서 유능함은 의학훈련을 마칠 수 있는 지적 능력, 꾸준히 연구를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하는 능력, 의사로서의 적성, 예를 들면 몸, 생명, 고통 등에 대한 호기심 및 병의 치료 및 원인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의미한다. 의학과 관련된 윤리성은 의사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제고하는 능력, 개인으로서의 인격 도야, 인간과 고통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포함한다.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한 전문직업성을 갖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올리버 에비슨의 사례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그의 지적 잠재력을 기반으로 직업에 헌신하고, 의학을 적용하도록 동기화되어야 하고, 의학지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법을 생각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생들은 공부하고, 연습하고, 경험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사회 및 의료계 내에서 공유할 만한, 새로운 의학적 가치를 모색하고, 상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관계형성 역시 중요하다.

올리버 에비슨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학교육의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동기 및 사회적 책임의식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입학과정에서 이와 같은 동기와 책임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의학지식 외에도 의학적 창의력이 발달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앞으로 대하게 될 환경은 과거와 같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일 가능성이 많고 앞으로 더 좋은 의료 환경을 생성해내기 위해서 노력해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학생들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를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도록 하여 의사로서의 자기 모습을 재정비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때때로 의과대학생들 중에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 때 더 보람을 느끼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학생들이 이에 대해 더 잘 이해

하게 된다면 더욱 열정적으로 자기 일에 몰두하고, 그 일에서 더 좋은 가치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생들의 전문직업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 형성은 반드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수들이 그리고 관련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사들과 다양한 상황에서 만남을 가져야 한다. 다양한 사회적 인사들과 의견을 나누고,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는 의대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경험이다.

이 연구는 올리버 에비슨의 한 사례를 통해 의학 전문직업성의 발달을 규명하고자 했다. 앞으로 의료지식, 술기, 의료윤리,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사례 연구가 더욱 풍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CKNOWLEDGE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from the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2007).

REFERENCES

1. Guest CB, Regehr G, Tiberius RG. The life long challenge of expertise. *Med Educ* 2001; 35: 78-81.
2. ABIM Foundation.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ACP-ASIM Foundation.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American Society of Internal Medicine; European Federation of Internal Medicine. Medical professionalism in the new millennium: a physician charter. *Ann Intern Med* 2002; 136: 243-246.
3. Scott-Smith W. The development of reasoning skills and expertise in primary care. *Educ Prim Care* 2006; 17: 117-129.
4. Connelly JE. The other side of professionalism: doctor-to-doctor. *Camb Q Healthc Ethics* 2003; 12: 178-183.
5. Miettinen OS, Flegel KM. Professionalism in medicine. *J Eval Clin Pract* 2003; 9: 353-356.
6. Chung CW. Current situation of medical professionalism education in Korean medical schools. *Korean J Med Educ* 2004; 16: 259-267.
7. Hur Y. Core elements of medical professionalism for medical school applicants. *Korean J Med Educ* 2006; 18: 297-307.
8. Avison OR. *Memoirs of life in Korea*. Manuscript; 1940. Korean translation edition. Hwang YS, translator. Gyeongsan, Korea: Taegu University Publisher; 2006.
9. Lee KL. *The life of Oliver R. Avison*. Seoul, Korea: Yonsei University Publisher; 1993.
10. Horrace U. Canadian's role for education and medicine in Korea. *J East West Stud* 1990; 2: 1-13.
11. Gardner H, Csikszentmihalyi M, Damon W. *Goodwork: when excellence and ethics meet*. New York, USA: Basic Books; 1998.
12. Gardner H. *Creating minds*. New York, USA: Basic Books; 1993.
13. Moon YL, Hong SH, Ryue SH. Baekbum Koo Kim's intellectual development. Seoul, Korea: Gipmoondang; 2004.
14. Ryue SH. Human environment for being a great doctor: from case to construction. *Yonsei J Med Educ* 2008; 9: 57-65.